

## R-20. 치주치료를 받은 59명 환자에서의 치아 상실

석정진\*, 장문택, 김형섭

전북대학교 치주과학교실

### 1. 서론

1978년 Hirschfeld와 Wasserman의 연구에서는환자마다 치료후 반응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치료후 반응에 기초를 두어 Well-maintained (WM) group, Downhill (D) group, Extreme Downhill (ED) group 의 3 group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분류법을 이용하여 치주치료후 치아상실율을 분석하고 이전 연구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들중에서 치주질환으로 진단받고 치주치료후 최소 3년이상 정기적인 관리를 받은 5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진시 구상 검사때 없었거나 초기 치주치료시에 발치된 경우는 치아상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치아우식증, 치아파절, 치근단병소등의 원인으로 발치된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오직 치주치료후 관리기간동안 치주질환에 의해 상실된 치아만 포함시켰다.

### 3. 결과

초기 치료후 59명의 환자에서 존재하는 총 치아수는 1580개였고 그중 평균 5.8년동안의 관리기간동안 치주질환으로 상실된 치아는 총 84(5.3%)개였다. Well-Maintained group의 48명에서 총 1300개 치아 중 27(2.1%)개가 상실되어 환자당 0.56개의 치아가 상실되었고 Downhill group의 9명에서 총 227개 치아중 31(13.7%)개가 상실되어서 환자당 3.44개의 치아가 상실되었으며 Extreme Downhill group의 2명에서는 총 53개의 치아중 26개(49.1%)의 치아가 상실되어 환자당 13개의 치아가 상실되었다. 외과적 치료를 받은 치아는 총 607개였고 이중 관리기간동안 상실된 치아는 48개로 7.9%의 상실율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에 따른 치아상실율 차이를 비교해보았을 때 남성에서는 총 1026개 치아중 67개(6.5%)가 상실되었고 여성에서는 총 554개의 치아중 17개(3.1%)가 상실되었다.

### 4. 결론

- 1) 평균 5.8년의 관리기간동안에 59명의 환자에서 환자당 1.42개의 치아가 상실되었다.
- 2) 치료방법에 따른 치아상실율의 차이는 없었으며 외과적 치주치료가 치아상실율을 낮추지 못하였다.
- 3) 치아상실율은 전치부보다는 구치부치아가 하악치아보다는 상악치아의 상실율이 높은 경향이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치아 상실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4)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치아상실율과 좌우대칭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